

장학금 전달

김완수(송실대)외 4명
지난 3월 26일, 임시총회에서



장학금을 전달하는 이의구 회장

우리협회(회장 이의구)는 지난해 제33회 정기총회에서 신설한 장학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 및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할 건축분야에 재능이 탁월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들을 소속 대학의 추천을 받아 그 중 5명을 1999년도 대한건축사협회 장학생으로 선정하여 각각 4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된 장학금은 정부시책으로 5개 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지난 91년도 10월부터 98년도 2월까지 시행된 신도시 공동감리단 운영에 따른 감리비 예치액에서 발생된 이자수입 중 공동감리단 지도위원회 및 우리협회 총회 결의에 따라 일반회계 잡수입계정으로 세입화한 93~98년도까지의 이자발생분을 제외한 91~92년도 조성분 감리단 운영비(이자발생분)를 신도시 공동감리단 지도위원회에서 대한건축사협회 장학회 기금으로 출연하여 장학사업 목적에 사용토록 지정, 결의됨에 따라 이를 재원으로 지급한 것이다. 장학금수여자는 다음과 같다. 송실대학교 건축공학과 4학년 김완수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4학년 박남기 부경대학교 건축공학과 4학년 박희준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4학년 임명수 중앙대학교 건축학과 4학년 허 선

장석웅회원, AIA 명예회원

故김수근, 이광노에 이어

장석웅(아도무건축, 전한국건축가협회회장) 회원이 건국 이래 세 번째로 AIA 명예 회원으로 위촉됐다.

인천건축사회 사무실 이전

남동구 구월동 태정빌딩 2층으로

우리 협회 인천광역시건축사회가 지난 3월 24일 사무실을 이전했다.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42-22(태정빌딩2층)

전화: 032-437-3381~4,

팩스: 032-437-3385

건축계소식 archi-net

건축가협회, 21C 한국대형 건축전

4월 22일부터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한국건축가협회(회장 김한근)에서는 99 건축문화의 해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오는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 600년 기념관에서 「21C 한국대형 건축전」이 열린다. 99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와 문화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전시회는 21세기 한국의 건축문화를 대표하게 될 대형 건축물들의 모습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전시회에 참여하게 될 프로젝트는 인천국제공항, ASEM, 2002월드컵경기장, 고속철도역사, 국립중앙박물관 등이 포함되며, 모형과 패널전시를 비롯해 각종 영상물이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행사와 관련하여 한국건축가협회는 이들 프로젝트가 21세기초에 완공되어 이후 한국의 도시환경을 대표하게 되며,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관심을 모을 수 있고, 건축적으로는 물론, 완공 후에도 사회적으로 큰 역할을 하게 될 건축물이라고 그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전시회가 건축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한국의 건축문화와 그 역량을 알릴 수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762-8090

제18회 대한민국건축대전 개최요강

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반공모전 원서교부

한국건축가협회(회장 김한근)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건축대전의 개최요강이 발표됐다.

초대전과 일반공모전으로 나뉘어 실시되는 제18회 대한민국건축대전은 오는 10월 14일부터 23일까지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전시되며, 건축 및 도시설계에 관한 창작품(구조, 실내디자인, 조경, 가구 등 건축 도시설계에 관계되는 작품 포함)을 응모할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단, 1인 1작품에 한한다. 올해 대전의 심사위원은 고주석, 김병운, 김병현, 김봉렬, 유원재, 이종호, 최두남씨가 맡는다.

◇ 작품규격, 요령

〈1차〉 원서 및 작품계획안(원서교부시 미리 교부되는 소정의 양식에 작성) 우편접수도 가능(8월 27일 소인에 한함)

〈2차〉 패널 및 모형(1차 예비심사에서 입선된 작품에 한함)

규격/패널(가로90cm×세로180cm 이내)
모형(가로90cm×세로90cm×높이90cm 이내)

요령/ · 도면에는 주제와 개념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유리, 플라스틱류 등 반사재료를 사용하지 말 것.
· 운반이 용이하도록 조립할 것.
·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됨.

◇ 원서교부(일반공모전)/99. 4. 5.(월)~4. 30.(금)

◇ 작품접수

· 초대전 - 99. 10. 11.(월),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10시부터 17시까지

· 일반공모전-1차: 99. 8. 27.(금), 사무국에서 9시부터 17시까지, 2차: 99. 10. 11.(월),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9시부터 12시까지

◇ 심사일정

· 1차 예비심사: 9. 1.(수)~9. 3.(금)
· 본심사: 10. 11.(월)~10. 12.(화)
· 3차 공개심사: 10. 13.(수) 오전 9시

◇ 심사결과

· 1차: 99. 9. 4.(토) 오전 11시 예총회관
· 2차: 99. 10. 14.(목) 오전 10시 예총회관, 예술의 전당 미술관

◇ 시상(일반공모전)

· 대상(1점): 상장, 상패 및 상금 5백만원
· 우수상(3점): 상장, 상패 및 상금 각 2백만원(한국건축가협회장상, 대한건축학회회장상, 대한건축사협회장상 각1점)
· 특별상(1점): UIA(국제건축가연맹) 회장상
· 특선(약간): 상장 및 상금 각 5십만원
· 입선(다수): 상장

◇ 수상작설명회/99.10.22.(금) 오전 10시, 예술의 전당 미술관

◇ 시상일자/ 99. 10. 22.(금) 오후 3시, 예술의 전당 미술관 2층

◇ 출품원서대금

· 1차 원서비: 4만원
· 2차 출품비: 3만원

◇ 문의: 한국건축가협회 사무국(02-744-8050)

한국건축역사학회, 4월 월례발표회

4월 17일(토) 오후 2시
덕수궁내 궁중유물 전시관 2층
세미나실에서

한국건축역사학회에서는 오는 4월 17일(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덕수궁내 궁중유물 전시관(석조전) 2층 세미나실에서 4월 월례발표회를 갖는다. 이번 발표회는 건축과 공동성(共同性)이라는 주제로 서울대 건축학과 김광현교수가 발표한다.

17회 서울시건축상 발표

금상에 기상청청사(원도시건축)



기상청 청사(원도시건축)

서울시는 지난 3월 18일 제17회 서울시건축상 수상작을 발표했다. 준공건축물 부문에서는 원도시건축이 설계한 기상청청사가 관공서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건물 뒷면에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원형중정을 배치해 높은 점수를 얻음으로써 금상을 차지했다. 또 올해 신설한 서울시건축상야간조명상부문에는 코스모타워(담배인삼공사 사옥)가 멀리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조도를 높이고 조명을 통해 건물이 수직상승하는 듯한 발전지향적인 모습을 연출한 것이 호평을 받아 금상을 차지했다. 오는 5월 12일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을 갖기로 했으며,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수상작 전시회를 연다.

준공건축물부문 ▷금상: 기상청청사 ▷은상: 한국중공업사옥·초록마을아파트 ▷동상: 고려포리머사옥·연세대상남경영관·양천소방서·도곡우성캐릭터199 ▷장려상: 김옥길기념관·호혜섬유사옥·퀀테스레지던스,

야간조명상부문 ▷금상: 코스모타워(담배인삼공사사옥) ▷은상: 포스코센터 ▷동상: 송례문 ▷장려상: 갤러리아백화점·한국방송공사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동일용도군내 주차장설치기준 단일화

건설교통부는 동일한 용도군내의 건축물설치기준이 단일화돼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3월 29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한 용도군내의 건축물 용도변경을 쉽게 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용도군별로 동일하게 조정키로 하고, 다만 시설물 연면적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산정하기 관련한 관람장, 골프장시설 등과 동일한 용도군에 속하나 주차수요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방송국, 기숙사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종전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동일용도군은 아니지만 유사한 용도로 이용되는 의료시설과 운동시설,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의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150㎡당 1대로 동일하게 조정해 주차장 추가설치 없이도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했다. 이같은 설치기준의 조정에 따라 백화점, 쇼핑센터 및 판매시설은 80~100㎡당 1대에서 150㎡당 1대로, 업무시설 및 종교시설은 100㎡당 1대에서 150㎡당 1대로 완화되고, 특히 다세대주택의 설치기준을 다가구주택과 동일하게 완화시켜 주차장의 추가설치 없이도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건축학교, 제3쿼터 일정

4월 6일부터 24일까지 원서교부

미래의 건축가를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전문교육과정으로 4년제 대학에서 교육을 이수한 국내외 학생들과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일하는 젊은 건축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건축학교(교장 조성룡)의 98/99년도 제3쿼터 일정이 발표됐다. 4월 6일부터 24일까지 원서가 교부되고, 12일부터 24일까지 입학지원서, 졸업증명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가 갖춰진 서류를 접수받아 4월 30일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이번 제3쿼터의 설계스튜디오에는 김영준스튜디오(주제: 낮선 곳), 김 현스튜디오(주제: Camera Cognita-mindscape), 서해림스튜디오(주제: Costume/Custom II), 이종호스튜디오(주제: 우리에게 필요한 장소 - 대학로에서)로 진행되며, 건축전반에 관한 이해를 돕고 기본적인 설계작업 훈련과정으로 예비스튜디오과정도 새롭게 개설돼 조성룡(조성룡도시건축), 최 옥(KPC건축)씨가 진행한다. 진행기간은 정규과정의 쿼터기간과 동일하며, 쿼터말 학무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학생은 설계스튜디오 과정에 진급할 수 있다. 1999/2000년도 제1쿼터(0909-1106)는 오는 6월중에 모집한다. 문의: 서울건축학교 02-763-0471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 설계전임교수 영입

민선주씨 등 6명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 전문대학원 교유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4명의 전임교수외에 99년 3월 1일부로 6명의

신임교수를 초빙했다. 따라서 건축전문대학원 단독으로 모두 10명의 전임교수를 확보하게 되어 건축학부 교수 8명과 더불어 SAK, GSAK 전임 교수진은 총 18명에 이르게 됐다. 신임전임교수는 다음과 같다. 천의영(서울대공학박사/하버드대학원/서울대/건축설계) 민선주(하버드대학원/콜럼비아대/건축설계) 헬렌박(서울대공학박사/하버드대학원/하버드대/건축설계) 박홍서(밀라노대건축학박사/경희대대학원/경희대/건축설계) 안창모(서울대공학박사/서울대대학원/서울대/건축학설계) 이영범(AA스쿨건축학박사/서울대대학원/서울대/건축설계) 문의: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 교학부 02-390-5245

한국건축사진가회(APOK) 발족

초대회장에 임정의씨

한국건축사진가회가 서울 강남구에 사무국을 두고 지난 3월 6일 발족했다. 새로운 21세기를 맞는 시점에서 건축사진가들이 모여 새로운 꿈을 꾸며, 스스로 지금의 상황과 직무를 올바르게 인식하여 건축사진가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다하고자 건축사진가 임정의(청암스튜디오)와 25명이 그 뜻을 같이하고 정기모임을 갖기로 한 것이다. 이 모임은 앞으로 건축사진계의 회보 발간(계간), 정기적인 전시회(10월 25일~30일, 중구문화원 예정), 전체적인 사진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한 기초작업, 연 2회 정기 세미나 등의 행사를 통해 좀더 성숙된 문화를 위해 힘을 쏟기로 했다. 참여건축사진가는 다음과 같다. 강일민, 김경호, 김용관, 김재경, 김재윤, 김철현, 김태오, 류정훈, 문정식, 박광섭, 박영채, 박완순, 박호관, 백운열, 송재영, 염승

훈, 유경수, 이기환, 이민상, 이인미, 이재형, 임정의, 전성영, 정정웅, 조명환, 조태룡
사무국: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92-3
신빌딩 1층
전화: 02-567-2700, 팩스: 02-569-0061

미국 임산물협회(AF & PA), 제6기 목조 건축 설계교실 개최

현업 건축사 대상, 전문 교육 프로그램 진행
오는 5월 8일부터

미국 임산물협회 한국사무소(대표: 안경호)는 목구조 건축 전문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현업 건축가를 대상으로 하는 '제6기 목조 건축 설계교실'을 개최한다. '목조 건축 설계교실'은 한국형 목조주택의 개발과 정착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개설하여 현재 제5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택 시장의 개방에 따라 목조주택이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것에 대비하여 건축가들과 시공인들의 보다 더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모색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마련되어 각 대학교수/강사, 건축사, 주택 건설, 재료 및 인테리어 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주로 목구조 설계의 기본 이론, 설계의 표준화, 올바른 자재의 선택, 시공의 용이도 등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비를 절감하는 보다 과학화된 방법을 다루고 있다.

수강생 모두가 현업 종사자임을 감안하여 강의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되며 강사진은 김진희 소장(목조 건축 기술연구소 소장), 송재승 소장(미추건축) 등을 중심으로 목구조 건축의 각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목조 건축 설계교실 수강생들의 강의에 대한 호응도는 매우 높아 강의 수료 후에도 지속적인 정보 안내와 목조 건축 설계에 대한 자문 및 회원간의 공동 연구를 위한 모임을 갖고 있으며 목조 주

택 시공회사를 설립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제6기 목구조 설계교실은 오는 1999년 5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목조건축 기술연구소(전화: 734-2181)를 통해 알 수 있다.

'99 목조주택 기술 세미나 개최

지난 3월 4, 5일 건축가를 대상으로



미국 임산물협회 한국사무소(대표: 안경호)는 3월 4일과 5일, 양일간에 걸쳐 국내 목구조주택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미국산 목재 제품 및 목조주택 관련 기술 세미나'와 '목조주택-21세기 주거문화'를 주제로 전문 세미나를 개최했다.

4일 첫날 '미국산 활엽수 목재기술 세미나'와 '목조주택 관련기술 세미나' 두 세션으로 이뤄진 '미국산 목재제품 및 목조주택 관련 기술 세미나'에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목구조 주택 건축 자재인 미국산 제재목에 관한 산업 현황 및 적용 사례를 비롯, 미국산 활엽수 마루판의 장점 및 설치 기법, 목조 주택 창문의 특성 및 설치 기법, 목조주택용 콘크리트 기초 설계 및 건축 법규 및 미국산 합판과 공학목재제품의 등급 및 응용 사례 등의 실용적이고도 최신의 목구조 건축 기술이 소개되었다.

이튿날 미국 임산물협회와 한국목조건축 기술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목조주택-21세기 주거문화' 세미나에서는 문

학의 일부분으로서의 목조주택의 개념을 재조명, 한국의 도시 근교 주거단지 개발의 특성, 공학목재로서의 미래 건축 및 한국 목조건축의 내일이 강연되었다.

'99 미국 활엽수 목재 기술 세미나 개최

'99 서울리빙디자인페어 참가 기념

미국 임산물협회 한국사무소(대표: 안경호)는 3월 12일, '99 서울 리빙 디자인 페어 참가를 기념함과 동시에 미국산 활엽수 목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사용에 대한 기술 이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99 미국 활엽수 목재 기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획일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인간미가 느껴지는 자연적인 소재와 전원적인 분위기가 실내 인테리어의 최신 경향으로 소비자들의 인기를 불러 모으고 있는 가운데 가장 따뜻하고 친근한 소재인 미국산 활엽수 목재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되어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특히 미국 임산물협회는 세미나와 더불어 리셉션을 개최하여 국내 목재 업계와 미국 활엽수 목재 수출업체간의 직접 교류의 장을 마련, 효율적으로 최신의 목재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 VKw Lumber Co., Mr. Bob Sabistina 수출담당 이사가 '활엽수 목재수종 및 등급의 올바른 이해'에 관한 강연을 통해 목재 인테리어 시공시, 실질적으로 필요한 활엽수 목재 등급 및 고품질의 목재 선정 기준, 실제 시공 사례 중심의 정보를 제공했다.

연세대 주거환경학과 박영순 교수의 '실내 및 가구 디자인을 위한 활엽수 응용 사례' 강연에서는 특히 실내 환경에서 목재 사용이 증가하게 된 배경과 목재가 가지는 활엽수의 디자인적 특징, 목재를 이용한 국내 디자인 경향과 함께 활엽수를 이용한 국내 디자인 전망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강의로 참가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한편 충남대학교 임산공학과 강호양 교수는 '온대산 활엽수의 종류, 건조 및 물리적 특성'의 강연 주제하에 목재의 구조, 판재의 종류, 밀도, 함수율, 수축률, 건조재의 결합 등에 대해 소개, 활엽수 목재의 공학적 특성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특히 마지막 강연자로 나선 조광목재 유태학 대표는 국내에서는 구하기 힘든, '온대산 활엽수 목재의 유통 구조 및 이용 현황'에 관하여 미국활엽수목재협회(American Hardwood Export Council)의 자료를 인용, 목재 공급 및 수종별 선호도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세미나의 대미를 장식하였다. 문의는 미국임산물 협회 한국사무소의 홍보 대행 오리콤 PR팀 신혜성(Tel. 02-510-4119, Fax. 02-516-3631)

코사프, 종이건축물 모형 시판

세계 유명건축물 20여종

(주)코사프(대표 김창우)는 이탈리아의 에디토리아레 도무스(Editoriale Domus) 사로부터 종이건축물 모형세트(Domus Kit)의 아시아지역 판권을 획득, 판매에 나섰다. 이달말 일본 관광객의 내방이 많은 부산 파라다이스 면세점에 입점하는 한편 내년 3월 일본 및 홍콩에서 열리는 전시회 등에 참가하는 등 아시아지역에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종이접기라는 뜻을 가진 Domus Kit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아름다운 기념 건축물을 특수코팅 처리된 최고급 종이를 재료로 사용하여 견고성, 내구성, 질감 및 정교함이 탁월한 모형 건축물이다. 모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첨부된 제품의 상세한 설명대로 색깔과 번호에 따라 알맞게 오려진 부분을 뜯어내어 접고 끼우고 접착제로 붙이기만 하면 된다. 문의: 02-2298-3620

월간 이상건축 사무실 이전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으로

월간 이상건축이 편집과 취재업무의 원활을 위해 사무실을 부산에서 서울로 이전했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06-17 진우빌딩 4층

전화: 02-549-5383 팩스: 02-546-6513

건축신간안내

영화속의 건축이야기
해외나, 세계나
시대를 담는 그릇
AutoCAD 2000 업그레이드 트레이닝

◆ 영화속의 건축이야기



이 책은 최근 다양한 학문의 크로스오버현상으로 영화속에서 보여지는 건축의 이미지를 밝히고, 현재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영상매체중 하나인 영화속에서 건축이 어떻게 보여지고 해석되는지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외국에서도 최근들어 이런 접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젊은 건축가의 입장에서 새로운 해석을 보여주고 있으며, 건축이 문화적 관점에서 일반인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대중에게 접근하기 쉬운 영화를 통해서 건축을 풀어봤는데 의미가 있다. 1, 2부로 나누어 구성됐으며 1부에서

는 여러 영화들을 통해 다양한 주제들이 이끌어내고 있고, 2부에서는 각각의 영화들을 통해 그 속에서 건축을 이야기하고 있다.

홍성용 지음/277쪽/1만4천원/도서출판 발언(02-929-3546)펴냄

◆ 해외나, 세계나



건축: 해외유학의 기회와 몇 그리고 세계 속의 프로

20세기의 마지막에 서서 다가오는 뉴밀레니엄을 기대하며, 또한 99건축문화의 해를 자축하는 의미에서 아크포럼에서 시리즈로 책을 발간하고 있는데 이 책은 그 일곱 번째다. 유학은 건축인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는 테마이기도 하다. 단순히 해외로 나가느냐에서 멈추지 않고 세계 속의 프로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이는 이 책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건축인들의 평소의 관심 또한 이 시대 딜레마의 심도를 반영하듯 국내의 다양한 네티즌들이 적극적으로 또한 솔직하게 자신의 고민을 표현하고 나름의 방향을 제시한다. 자신의 답은 결국 자신이 찾아가야 하지만 그 의문과 답을 보다 넓은 지평 속에 위치시키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아크포럼 기획편집/243쪽/8천4백원 / (주)서울포럼(02-514-9838)펴냄

◆ 시대를 담는 그릇



이 책은 한국건축의 재발견 시리즈 1권

나는 건축의 이론가가 따로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어떤 건축가가 그의 체취가 물씬 나는 고유한 건축을 그려낸다면 그는 독특한 조형언어를 가진 독립된 건축가이며 도상만으로도 그의 사상을 나타내는 건축 이론가다. 그리고 그의 이론이 역사와 접촉할 수 있다면 그의 건축은 우리 사회를 좀 더 진보시킬 수 있는 중요한 모티베이터가 되며 그 건축은 역사에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건축을 학문으로 하는 이도 그 학문 안에 건축의 창조적 기능과 재현의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면 그 학문은 파상적이며 공허하게 될 뿐이다. 특히 역사를 탐구하는 목적이 혼란만 이라면 그 역사는 생명 잃은 유물이며 이미 폐기물이다. 김봉렬교수는 학문하는 건축인이며 건축역사학자다. 그러나 그의 학문하는 영역과 역사를 바라보는 눈과 애정은 영화로운 과거의 사실에 있지 않고 오히려 철저히 황폐해 있는 우리의 현재에 있다. 그는 과거의 사실을 막연히 바라보지만 않는다. 그는 이 땅에 남겨진 우리 건축의 흔적을 찾아 그 속에서 발견한 언어를 현재에 대입하여 새로운 건축을 그리고자 노력하는 불과 몇 되지 않는 이 땅의 학자 중 한 사람이다.

3년 전 일본의 조그만 도시 이즈모에서 이즈모포럼이란 심포지엄에 김교수와 나는 주제연사로 같이 초빙되어 참가한 적이 있다. 그 당시 그 포럼의 주도자인 교토대학 후노 스지교수는 '약관 27세 때 '한국'의 건축'이란 명제를 제출했으니 이를 두고 천재라 칭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며, 김봉렬 교수를 관중에게 소개하였다. 나는 그 때 새삼, 김교수의 놀라운 성취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일본에서도 번역되어 출간된 이 책은 1985년에 초간되었는데, 이 책은 한국 건축역사에 전혀 무지하여 마치 망망대해를 떠돌던 나에게 황금같은 네비게이터로 다가왔음에 그 즐거움을 말할 나위가 없었다. 그 책의 가치는 저자가 밝힌 바 대로 단순히 고건축 답사와 감상에만 있는 게

으로 월간 이상건축에 3년간 연재되었던 부분을 정리 보완하여 출간한 것이다. 한국전통건축을 새로운 시각에서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우리 선조들의 훌륭한 건축적 자산과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통해 오늘의 현대건축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올바른 건축문화 형성에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필자인 김봉렬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건축과)는 전국에 걸쳐 산재해 있는 전통건축을 수십차례 답사하여 3년에 걸쳐 약 1,200페이지 분량으로 생생한 현장사진과 실측도면 등을 엮어 각각의 건축물별로 테마를 먼저 선정하여 구성하였기 때문에 한국전통건축의 전체 맥락과 구성,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의 정신으로 일맥상통하여 집필되어졌다. 김봉렬 지음/243쪽/8천4백원/월간 이상건축(02-549-5383)펴냄

아니었다. 소개되는 항목마다에 길지 않은 글로 된 그의 해설은 그간 지루하고 답답하며 대단한 의무감 아니고는 도우지 읽기 어려웠던 한국건축역사서의 장르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 일으켜 세우고, 가까이 갈 수 없던 옛 건축을 낯설 씨줄로 꿰뚫어 아니라 가슴으로 부딪쳐 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건축으로 읽고 보게 만드는 계기를 주었던 것이다. 그의 나이 불과 27세였을 때 이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그가 이야기 한다.

"과거의 한국건축을 마법과 같은 신비주의의 산물로 여기거나 박물관 속의 유물같이 동결된 문화재로 취급하는 한 한국건축은 낭만적 회고나 강압적 애정의 대상은 될지언정 하나의 건축적 실체가 아니다. 무엇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다."

역사를 왜 공부하는가. 적어도 나에게 역사의 연대기적 시간만은 관심사항이 아니다. 역사적 사실의 배경과 과정 그리고 다음 사실에 대한 관련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왜' 그 사실인가 하는데 있다. 물론 이러한 질문은 내가 지금 그려야 하는 건축의 궁극적 목적에 지혜로운 실마리를 제공한다. 지루하고 저급한 논쟁 중의 하나인 전통건축의 모사 복원에 대한 문제는 믿기로는, 바로 이 본질적 질문을 간파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이런 저런 기회에 듣게 된 김교수의 강의들은 항상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꿰뚫는 바 가히 경외로운 것이어서 늘 학술 논문 아닌 그의 두 번째 저술을 기대하고 더러는 재촉하곤 했다.

그러던 중 재작년부터 월간지 이상건축에 27개의 주제를 미리 내걸며 주옥같은 이 땅의 옛 건축들을 시리즈로 연재하는 대정정을 시작함을 보고, 그의 학문적 스케일과 깊이에 놀랐고, 그의 계획되고 스스로 제어하는 치밀함에 놀라며, 미증유의 이러한 저술을 참모로 반가워 했다. 또한 이번에 그 글들 중 일부를

단행본으로 출간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 건축인들뿐 아니라 일반대중에게까지 읽혀질 계기가 되는 듯하여 기쁘기 그지 없다.

우리는 그의 글에서 건축만을 만나지 아니한다. 그의 끝간데 없는 지식과 사유로 이루어진 글을 따라 읽어 내려 가다보면 그 건축과 관련한 인물과 만나고 그 인물이 엮은 역사를 만나고 그 인물의 사상체계와도 만난다. 또한 그 건축이 놓인 땅을 이해하도록 조선과 고려의 산수를 만나고 더러는 이땅의 풀 포기과 기암괴석을 만나기도 한다. 그야말로 종합무언이요, 점입가경이며, 무변방대한 그의 이야기는 옛 건축의 단순한 해설이 아니라 건축을 주인공으로 하는 대하소설이요, 건축을 매개로 한 우리의 문화총서이며, 건축이라는 커를 통한 우리의 역사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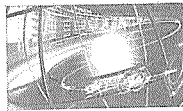
그러나 정작 나로 하여금 그의 글을 재독, 삼독하는 까닭은 새롭게 얻게 되는 앎이나 정보에 있지 않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두터운 사유에서 비롯된 그의 글은 언제나 우리의 휘청거리는 현재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지혜로운 이상세계를 끊임 없이 그린 선조들의 문화적 안목과 도덕적 실천을 그는 지금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 열정적으로 가르치며 일그러진 우리의 현대적 삶을 질타하고 나아가 미궁에 빠진 우리의 건축이 빠져나갈 통로를 예시하여 준다. 이 땅에 몇 남지 않은 우리의 옛 건축에 진실한 사랑을 듬뿍 담아 우리 건축의 지평을 한껏 넓힌 그의 글은 따라서 건축가가 읽어야 하고, 건축학자가 읽어야 하며, 건축의 사용자가 읽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누구보다도 읽어보기를 권하는 이는 우리의 건축을 스스로 질문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이이다. 왜 건축을 하는가.

이 질문의 중요함을 거듭 직시하는 이들에게만 필독해야 하는 그의 글이며, 우리의 글이다. 따라서 이 글은 가슴으로 읽는 글이다. 눈으로 읽는 글이 아니다.

◆ AutoCAD 2000 업그레이드 트레이닝



AutoCAD 2000



이 책은 AutoCAD의 개발 및 공급사인 오토데스크의 교육센터인 AOTC(Autodesk Official Training Courseware)가 출간한 것을 번역한 것으로 설계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AutoCAD 2000에 대한 새로운 기능에 초점을 맞춘 예제 중심의 학습서이다. 총 8개의 장과 한 개의 부록으로 구성된 이 책은 1장 제품개요편에서

AutoCAD 2000의 새로운 기능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2장 사용자 인터페이스 강화편에서부터는 예제를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특히 7장 확장성편에서는 이번 버전에서 새롭게 추가된 비주얼 베이직과 비주얼 리습, 그리고 매크로를 다루는 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고급 사용자들은 물론 초보자들도 쉽게 자신만의 환경을 만들 수 있게 했다. 이 책은 가장 초반에 목표를 밝힌 후, 기본적인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기본 예제를 제공해 독자의 이해를 높인 후, 독자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한 도전예제를 제공해 사용자의 능력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준다. 특히 이 책에 수록된 데모와 실습예제는 AutoCAD 2000의 새롭게 강화된 기능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오토데스크 지음/250쪽/1만원/도서출판 비컴프레스(02-564-9664)펴냄